



조선해양과 해군 기술부사관전공반 개설

인하에서 군(軍)부사관의 꿈을 펼친다!

인하공전은 지난 2019년 5월 해군과 체결한 우수부사관 육성을 위한 협약에 따라 해군기술부사관 전공반을 개설하고 교과편성 관련 필수과목을 제시, 부대 체험 및 실습교육과 실습장비를 지원하게 되었다. 이에 새로 신설된 조선해양과 해군기술부사관 전공반은 전문 해군기술부사관을 육성하는 학과다. 조선해양과에 입학한 학생 가운데 30명을 대상으로 해군기술부사관 전공반을 별도로 운영하는데, 해당 반을 졸업한 학생들은 해군에서 요청한 필수과목을 이수하면 해군부사관 지원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35년 간의 해군 복무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해양과 해군 기술부사관 전공반을 맡게 된 임광윤 교수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해군기술부사관 전공반 개설에 대하여

우수한 부사관 획득을 위하여 인하공전과 해군이 함께 노력한 결과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2019년 5월29일 인하공전 진인주 총장님과 이성환 해군교육 사령관님의 이름으로 학/군 교류 협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발 과정을 거쳐 영광스럽게도 제가 교수로 임용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1학기에는 조선해양과 1학년을 대상으로 해전사 강의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황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2학기부터는 해군기술부사관 전공반 지원자를 대상으로 리더십, 함정전기과 컴퓨터 보수, 함정손상통제 등 현장 중심의 과목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군복무와 전혀 다른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미약해 보이지만 미래의 해군을 이끌어갈 부사관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품은 인재들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가르칠 예정입니다. 향후 인하공전 조선해양과 학생들이 해양력과 해양안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해군으로 또는 조선해양인으로 각 부대에서 산업현장에서 주어진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군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며 나아갈 예정입니다.

부사관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한다면

올해 처음으로 개설된 과정이라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어 저 또한 의욕이 충만합니다. 인하공전 조선해양과에 입학하여 해군기술부사관 전공반을 지원하고 해군에서 요구하는 필수 과목을 이수하면 기관계열의 해군부사관 지원 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수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입학정원 대비 20% 정도의 학생은 우리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관일 기준 만 18세 ~27세 남자 및 여자 모두 지원 가능하며, 군 재복무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부사관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직업군인의 삶이 결코 사회와 격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부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군인이 되기 전의 삶과 군인의 삶, 또한 퇴직 또는 전역 후의 삶이 한 직선상에 있다는 것이지요. 부사관이 되고자 하는 예비군인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건강한 신체, 긍정적인 마인드, 전문적인 지식 3가지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중장기 군생활 중 퇴직(전역) 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군 생활에도 더욱 안정적으로 집중할 수 있어 전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능력계발에 적극적인 사람이 업무에도 더 열심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하여 준비하는 과정도 염두에 두고 인생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근무 여건에 따라 기회가 왔을 때 과감히 개인적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에게는 와 닿지 않는 조금 먼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저의 인생 경험과 전문성을 모두 쏟아 학생 여러분이 한 발 한 발 미래를 향해 내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군에서는 부사관으로 근무 중 전문 학사부터 석사 과정까지 군위탁생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도 가능하고요. 이렇듯 배움의 기회는 끝이 없습니다. 주어진 여건을 잘 활용하여 자기능력계발을 열심히 한다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제 막 힘찬 첫걸음을 내딛은 해군부사관 전공반이 탄탄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학생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교정의 벚꽃이 휘날리며 초록이 오기 전에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19 상황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서 지금까지 우리의 만남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함께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 삶의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은 자만이 역사를 이어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학습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뚫는 데 그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비대면 학습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교수님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지혜를 모아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시대의 진정한 승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김우현
조선해양과 20학번



저의 꿈은 해군 부사관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망설이지 않고 손을 내밀고, 맡겨진 일은 계획적으로 성실히 수행하며, 또한 어릴 때부터 운동을 통해 건강한 신체를 가꿔왔기 때문에 인하공전 조선해양과에 해군 기술부사관전공반이 신설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결심했습니다. 강한 힘을 길러 스스로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용감하고 강한 해군부사관이 되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태권도를 배우면서 경찰이 되고 싶었습니다. 성장하면서 다양한 직업을 눈여겨 보았고, 봉사활동에 많은 시간을 기울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 언제나 앞장서는 군인들에게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저도 전공을 살려 멋진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해군기술부사관 전공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고 기대가 큼니다. 학과 활동을 통해 여러 부대를 직접 보거나 경험하고, 군함을 타고 바다를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생존 수영 수업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업 진행에 제한이 있어 아쉬움이 크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배워서 앞으로의 꿈에 씩씩하게 다가갈 명예로운 군인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군인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막연하게 저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복을 입은 군인들의 능률한 모습이 어린 제 눈에 무척 멋져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사관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꾸게 된 건 고등학교 때입니다. 해군 부사관이란 부대 운영의 최일선에서 직접 군인들을 지도하며 장교와 사병 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하며 책임감 있는 군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중간관리자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공 공부를 통해 열심히 노력하고 배워서 졸업할 때 뿌듯함이 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후회 없는 학교 생활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승준
조선해양과 20학번



R E P U B L I C O F
K O R E A N A V Y